

# '국정원 요원' 남궁민 vs '재벌 상속녀' 이하니



MBC가 1961년 창사 이후 60년 만에 금토드라마를 신설, 남궁민 주연 '검은 태양'으로 포문을 연다. 17일 첫 방송하는 드라마에서 거칠면서도 현란한 액션연기를 선보이는 남궁민의 모습. 사진제공 | MBC

검은태양, 제작비 150억 첩보액션 박하선·김병기 등 배우들 총출동 원더우먼, 상속녀 된 검사 이야기 이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깔"

배우 남궁민과 이하니가 17일 '정면충돌'한다. MBC와 SBS의 금토드라마로 시청률 맞대결에 나선다. 함께하는 조연들의 면면은 물론 후속작의 주연 명단도 화려하다. 그만큼 각 지상파 채널의 현재 드라마 지향도, 이와 관련한 고민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요원의 첩보액션 VS 검사·재벌 상속녀의 좌충우돌

남궁민은 MBC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의 주연이다. 이하니는 SBS가 같은 시간대 방송하는 '원더우먼'으로 맞선다. 각기 국가정보원의 최정예 요원과 검사 역이다. 특히 2019년 '열혈사제'에 이어 검사 캐릭터인 이하니는 극중 재벌 상속녀 역할까지 1인 2역에 도전한다. '정통 첩보액션 드라마'를 표방하는 '검은 태양'에서 남궁민은 실종됐다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려 복귀하는 국가정보원 최정예 요원 역할을 맡아 범죄통합센터 팀장 박하선과 호흡을 맞춘다. '원더우먼' 이하니는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가 되어 인생의 변화를 맞으며 고민하는 분위기를 뽐낸다. 그는 15일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깔 웃으며 보는 대본은 흔치 않다"면서 '원더우먼' 대본을 보며 "계속 웃음이 터졌고, 슬픔 없이 앉은 자리에서 읽었다"고 밝혔다.

### ●주말 밤 10시대를 잡아라!

이들의 맞대결 무대는 MBC와 SBS가 신설하는 금토드라마다. 주말 밤 10시 대 시청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tvN 등 케이블채널을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해온 처지여서 지상파 채널의 자존심을 되살릴 기회로 삼는 분위기이다.

주연급 못지않게 화려한 조연들의 면면도 이를 대변한다. '검은 태양'에는 김병기·이경영·장영남·유오성·권소현·조보래·현봉식 등, '원더우먼'에는 이하니와 함께 주연하는 이상윤을 비롯해 진서연·전국환·정인기·황영희·김원해·예수정 등 개성 강한 연기파 배우들이 나선다.

후속작 주연도 그렇다. MBC는 '웃소매 붉은 끝동'의 이준호·이세영을 시작으로 김희선 주연 '내일'과 소지섭의 '닥터 로이어' 등을 잇달아 선보인다. SBS는 송해교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김남길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대항한다.

MBC는 "금토드라마를 신설, '나 혼자 산다'(금)와 '전지적 참견 시점(토)' 등 인기 예능프로그램과 함께 주말권 황금 시청 라인"을 기대한다. SBS는 방송 중인 '아모르파티-사랑하라, 지금'을 끝으로 아침 일일극을 폐지한다. 플랫폼이 다양해져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이 악화하는 상황이라서 좀 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주말 밤 시간대 드라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부작 '검은 태양'에 MBC가 1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것도 그 방증으로 읽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하니는 검사와 재벌 상속녀를 오가며 경쾌한 연기를 펼친다. 17일부터 공개하는 SBS '원더우먼'이 무대다. SBS도 토요 오디언스 프로그램 '라우더'로 중단했던 금토드라마 방영을 '원더우먼'으로부터 재개한다. 사진제공 | SBS

## 연예뉴스 HO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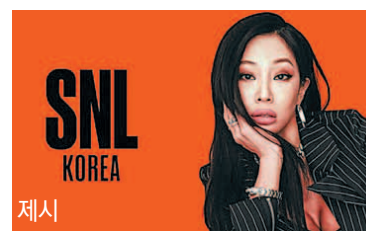
### 방탄소년단, 10월24일 온라인 콘서트 개최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월 온라인 콘서트를 연다. 방탄소년단은 15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공식 SNS를 통해 "10월24일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온라인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BTS MAP OF THE SOUL ON:E' 이후 1년 만이다. 당시 강경현실(AR)과 확장현실(XR)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오프라인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로 호평받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제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미국으로 날아간다.

### 서경석, 부동산 중개 플랫폼 광고 모델 하차

최근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공인중개업계가 충돌하면서 방송인 서경석이 관련 광고에서 하차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경석은 자신이 광고모델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에 관련 광고 중단과 모델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 그동안 다윈중개는 서경석 출연 광고를 그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시간대에 내보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최대 절반가량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반의반값 수수료' 등을 내세우면서 공인중개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에 MBC 등 서경석이 출연하는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광고 중단과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제시, SNL 코리아 추석 특집편 출연



거침없는 입담으로 시선을 끌었던 가수 제시가 'SNL 코리아'의 추석 특집편에 출연한다. OTT 쿠팡플레이의 첫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추석 특집편에서 제시는 더욱 대담해진 유머 감각을 뽐낼 것으로 보인다. 제시는 2015년 tvN의 'SNL 코리아' 시즌 6에 출연하기도 했다.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는 이병헌, 하지원, 조정석 등 톱스타급 연기자들을 잇달아 출연시켜 화제를 올렸다.

### 연기자 민지영, 갑상선 암 투병 사실 밝혀

KBS 2TV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으로 알려진 연기자 민지영이 갑상선 암 투병 중이다. 민지영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른쪽 갑상선에 암세포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안 뒤 눈물이 터진 남편을 달래느라 나는 정작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나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 다른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0년 SBS 공채 9기 탤런트로 데뷔한 민지영은 2018년 쇼호스트 김형균과 결혼했다.

### 쇼미더머니, 10주년 기념 힙합 프로젝트 선택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가 10주년을 맞아 10월 기념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엠넷의 운용사 CJ ENM의 OTT 플랫폼 티빙이 제작하는 힙합 콘텐츠 '힙합 메디컬 시트콤-EMERGENCY(이머전시)'이다.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 쉽게 떨어지는 힙합 스타들이 '닥터 양 멘탈케어 센터'라는 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양동근, 마미손, 카더가든, 뱃사공, 김희정 등 '쇼미더머니'를 잇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동시에 엠넷은 10월10일 '쇼미더머니 10'을 선보이며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최동원·노희찬·송해의 삶...다큐영화 물려온다

해의 밴드 '아하' 영화도 22일 개봉 휴먼다큐 '한창나이 선녀님'도 기대

가을 스크린에 다큐멘터리의 세계가 펼쳐진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아픔을 안고 살았던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 잇달아 관객을 만난다.

### ●최동원부터 그룹 아하까지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최동원을 추모하는 '1984, 최동원(감독 조성은)이 11월 선보인다. 올해 10주기를 맞아 공개되는 영화는 1984년 한국시리즈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을 중심으로 최동원의 투혼과 미공개 영상 등을 더해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노희찬 의원의 삶을 들여다보는 '노희찬6411'(감독 민환기)은 10월14일 관객을 찾는다. 용접공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누구나 약기 하나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사회"를 꿈꿨던 한 사람의 삶에 관한 기록이다. 제목은 서울 구로구에서 강남 개포동까지 새벽 도로를 달리는 6411번 노선 버스에 올라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을 떠올린 고인의 연설에서 따왔다.

1927년생 코미디언 송해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 '송해 1927'(감독 윤재호)도 11월 공개된다. KBS 2TV '전국노래자랑'을 33년 동안 진행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그의 무대 뒤 모습을 담았다. 그는 지난해 건강이상설에 휩싸여 우려를 자아냈지만 최근 몸무게 7kg을 줄여 건강한 모습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영화에 대한 자



영화 한창나이 선녀님. 사진제공 | 트리플픽처스

부심을 드러내며 적극적 홍보 활동을 예고했다.

추억 속 해의 톱스타도 만난다. 1980년대 히트곡 '테이크 온 미'(Take On Me)의 밴드 아하(a-ha)의 탄생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좇는 '아하:테이크 온 미'가 22일 개봉한다. 2014년 생을 마감한 할리우드 스타 로빈 윌리엄스가 인간적 캐릭터로 빛어낸 웃음 속에 숨긴 힘겨운 삶을 들여다보는 '로빈의 소원'도 23일 선보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방송가 추석특집... '실험' 대신 '내실 다지기'

KBS, 심수봉 언택트 콘서트 선택 MBC '아육대' 접고 '더마텔' 방영 SBS, 기존 프로그램을 특집 편성

올해 추석을 맞는 방송가는 예년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이다. 각 방송사가 명절 연휴 동안 많게는 4~5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정규 편성의 시험대로 삼았던 것과 달리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올인'하기로 했다. 새로운 도전보다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 ●공연프로그램에 집중

추석 특집 제작에 적극적인 방송사는 KBS이다. 19일 2TV로 가수 심수봉의 언택트 콘서트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방영한다. 심수봉이 TV에서 단독으로 공연하기는 1995년 1TV '빅쇼' 이후 26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나훈아에 이은 '전설'의 무대라는 점에서 방송가 안팎의 기대감이 크다. 또 다른 특집프로그램으로는 20일과 21일 방영하는 2TV '이거 알아?'와 1TV '옛날TV 그랜 그랜지', 20일과 22일 2TV '전설의 배우들' 등이 있다.

MBC는 2010년 이후 명절 연휴에 방영해온 '아이돌 육상선수권대회'(아육대)를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보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외 각국에서 리메이크된 '복면가왕'의 스페셜 프로그램 '더 마스크드 탤런트'(더마텔)를 21일과 22일 방영한다. 비연예인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는 경연으로, 프랑스 제작사 에르브 위베르와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사진제공 | KBS

공동 개발했다. 같은 날 스타들이 형제·자매와 함께 출연하는 '호적메이트'도 준비했다.

SBS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집사부일체' 등 기존 프로그램을 추석 특집으

로 확대 편성했다.

### ●파일럿보다 신규 프로그램 정규 편성

이전보다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수의 출연자를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려운 탓이기도 하지만 이전보다 예능프로그램 편성이 자유로워진 환경도 작용했다. 15일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시즌제 방식 등이 활성화되면서 추석 등 명절은 '테스트 베드'(새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환경)로 여기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새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아예 추석 연휴에 맞춰 방영하는 추세이다. 연휴 직전인 17일 금토드라마인 MBC '검은 태양'과 SBS '원더우먼', MBC예능프로그램 '극한데뷔 야생돌'이 첫 방송한다. 연휴 기간에 재방송 기회를 늘려 다양한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